

고흥 우주항공축제 대폭 손질

“관람객 수 부풀리고 일회성 이벤트 치중” 비판 여론 수용

지역축제 난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고흥군이 우주항공축제를 비롯한 지역내 축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흥군은 지난 7월28일부터 4일간 개최했던 지역 대표축제인 우주항공축제를 대폭 축소하고 읍·면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준비비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흥군이 올해 세번째 열렸던 우주항공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 데는 관람객 통계와 성과 등이 부풀려진 데다 우주항공과 무관한 일회성 이벤트 성 행사가 주류를 이룬데 대한 비판적 지역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다.

고흥군은 당초 우주항공축제 기간 동안 지난해 보다 26% 증가한 64만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으며 65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고흥군의회 신태균의원(과역면)이 행사기간동안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 참가인원을 집계한 결과 실제 관람객이 4만명에 불과한데다 수익금 역시 1억4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우주항공을 테마로 축제를 열면서 가수 초청 등 이벤트 성 행사에 2억원을 사용해 동네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민들은 “항공우주축제가 6억원에 달하는 투자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데다 노래자랑이나 향토먹거리 잔치 등 타 시·군 축제와 차별화되지 않은 획일화된 프로그램 일색”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특성화된 축제로 탈바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항공축제의 폐지나 축소 여부는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1-2개의 축제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축제가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고흥군이 대표 축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녹천 고광순 의사 ‘애국혼’ 기린다

다음달 1일 담양 창평서 순국 100주년 추모대제

구한말 의병장인 녹천 고광순 의사(1848~1907) 순국 100주년 추모대제가 오는 11월 1일 봉행된다.

(사)한말 의병대장 녹천 고광순 의사 기념사업회(회장 고재춘)는 “녹천 고광순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묘소에서 추모대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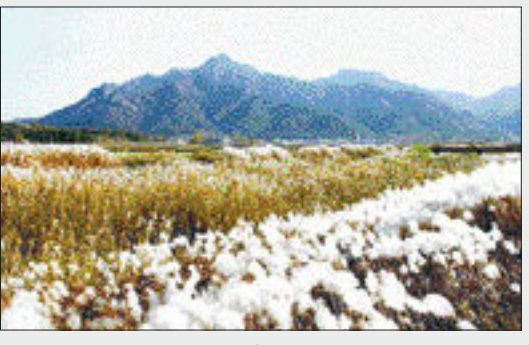
담양군과 기념사업회는 호남의병 정신을 일깨우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천리 일대 5천여평 부지에 55억원을 들여 녹천 고광순 의사 기념관(조감도)을 건립하고 생가 복원, 사당, 유물전시관,총의교

육장 등을 세우고 있다.

녹천 고광순의사는 1848년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에서 태어나 1905년 10월 한일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의병(창평의진)을 일으켜 창평, 능주, 동북 등지를 무대로 의병활동을 벌이다가 1907년 9월 구례군 토지면 연곡사에서 일본군과 전투중에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담양=채재화기자 jhw@



만추

‘영암의 비경’ 앵글에 쏙~

박 철씨 내달 10일까지 사진전

중견 사진작가인 박 철(53)씨가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암문화원 전시실에서 아름다운 영암을 소재로 한 사진전을 열고 있다.

박씨는 서울과 모스크바 등 국내외에서 15회에 걸쳐 개인전 및 개인초대전을 열었으며 현재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전남지회 부회장과 전남아동문화회 회장에 재직하고 있다.

박씨는 “세계 어느곳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영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면면히 이어온 전통문화도 관광상품화해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 사진전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 영암 월출산과 북한 금강산, 백두산 등 국내 명산을 연계한 사진전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순창장류축제 보고... 애기단풍 구경하고...

순창 강천산이 단풍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부터 사흘간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리는 제 1회 순창장류축제와 연계, 다양한 행사가 강천산 일대에서 펼쳐진다. 순창군관계자는 “이번 주말이 강천산 애기단풍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순창=이충식기자 hslee@

충청·서울·경기 문학동호인들 섬진강 기차마을서 시낭송회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지난 28일 의미 있는 문학행사가 열렸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150여명은 이날 섬진강 기차마을을 방문, 회원들의 시낭송회와 광재구 시인의 문학강연을 개최했다.

충청지역 9개 문학단체와 서울·경기지역 문학동호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광재구 시인과 섬진강 기차마을로 가는 시 사랑열차’라는 주제로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시상을 떠올리고 깊어가는 가을을 음미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연 것.

옛 정거장 정취와 증기 기관차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은 지난 4월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간이역 순회 시·노래콘서트’를 여는 등 관광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체험현장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영광군, 원전 해수사용 허가 1년 연장

영광군이 영광원자력발전소와 논란을 벌였던 해수(海水) 사용 기한을 1년 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30일 “원전 1-6호기 냉각수로 사용하는 흥농을 거머리 연안 해수(1일 3천200만t)사용 기한을 2007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어 “온배수(터빈을 가동한 후 배출되는 물) 배출구로부터 20.2km내의 피해보상 합의가 안되고 있어 어업권자들과 원전측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권고도 아울러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광원전은 30일로 끝나는 해수 사용 허가 기한을 조건 없이 연장해 줄 것을 영광군에 요구했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이에 대해 영광군은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20.2km내의 어업권자들에게 지난 해부터 지급해온 보상금 350억원 외에 추가 보상금을 올해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원전측이 반영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나주 금성중 남녀공학 전환해야”

“나주중 성비 불균형 해소위해” 의의회·시민사회단체 등 요구

나주지역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금성중학교의 남녀 공학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의회와 학부모 등이 참여한 나주 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 추진위원회는 30일 “나주중의 여학생 비율이 63%에 달하는 등 극심한 성비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같은 시내권 학교인 금성중의 남녀 공학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보 9월22일자 13면 보도)

나주 시내권 학교인 금성중과 나주중에는 1천5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며 남녀 학생수는 각각 580명과 470명으로

남학생이 많다.

중학교 재편성 추진위원회는 “그러나 사립인 금성중이 남학교인 관계로 나주 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이 월등히 많은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극심한 여초(女超) 현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생활지도, 특기적성 교육, 내신성적관리 등 학교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성중을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고 두 학교의 학급 규모 조정 등 성비 불균형 해소와 과대·과밀을 해소해야 한다”며 “남녀공학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성학원 산하 학교인 금성중은 지난 67년 설립됐으며 현재 학년당 3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나주 여성단체협 보조금 유용

말씀일자 뒤늦게 반납

나주 여성 단체협의회가 나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유용했다가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초에 열린 여성 화합 한마당행사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에 1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는 이 행사에

1천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여성 지도자 연합대회 사용했다가 말장이 일자 이를 시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우선 보조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확인으로 사용목적과 일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제주무궁화관광 | ☎064-744-1109

프리미엄 - 1박2일 74,000원

- 객차 2대 1차, 2차, 3차 - 1일 2차 동행합니다. 1일 2차 동행합니다. (1박2일 74,000원)

예약종류	특가금액
1박2일 동행	74,000원
2박3일 동행	109,000원
3박4일 동행	144,000원

• 보충기금: 1박2일 동행 89,500원 - 109,000원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상당시 전문 국제결혼 상담사 자격증 취득한 공식력 있는 회사

- ★ 국내결혼: (총혼, 재혼, 신혼) 커플맞춤식사예식준비
- ★ 국제결혼: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등) 한국 23개지사, 해외5개지사 결혼정보센터

(주) 웨딩스쿨 광주 지사 ☎03382-1491, 381-2262